



여, 15세기 전반에 수도의 기본 형태와 도시구조가 완성되고 도시공간이 정비되었다. 조선 후기의 지도인 <한양도>⁰¹에는 내사산과 한양도성, 궁궐과 시전행랑, 물길의 형상과 위치가 추상화되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후 16세기 말과 17세기 전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도성 안의 거의 모든 시설이 파괴되었으나, 궁궐과 시전행랑과 물길,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과 한양도성으로 이루어진 수도의 기본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재건되어 지속된다. 18세기 숙종·영조·정조의 시기에 궁궐의 운영이나 군영의 배치, 개천의 준설과 시장의 개설 등의 변화가 진행되지만, 15세기 초에 완성된 한성부의 도시 형태와 기본구조는 19세기 말 근대 도시로 재편이 진행되기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대부분의 한양 도성 지도처럼 이 지도 역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4산이 실경에 가깝게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는 한양의 입지와 형세에 수도의 위상이 투영되어 있으며, 그 능선을 따라 축조된 한양도성에 수도의 권위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